



‘슈거 아트의 세계’에서 발견한 삶

동경제과전문학교 졸업생 이은경

누군가는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자에게 서른이란 나이는 일과 삶과, 사랑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짓고, 보다 넓은 세계로 비상하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여물지 않은 청춘의 봄에서 이제 막 빠져 나온 그녀에게 서른이 갓 지난 여인이 품은 향기가 느껴진다. 이십대의 그녀가 꿈꿔온 삶과는 동떨어진 ‘슈거 아트의 세계’와 사랑에 빠진 이은경씨(31)를 만나 그녀의 향기에 취해본다.

제과, 슈거 아트와의 첫 만남

일본의 동경제과전문학교 입학 을 서두르던 스물 아홉살의 봄, ‘Let’s go!’를 외치며 당당하게 일을 해오던 그녀가 새로운 길에 접어든다. 남보다 일찍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은경씨는 무역회사 ‘한·일 컨설팅’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했다. ‘이건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야’라고 느꼈을 즈음, 이대 앞에 액세서리 가게를 창업한다.

워낙 아기자기하고 화려한 소품에 관심이 많은 터라, 액세서리를 다루는 일은 재밌었다. 조그만 가게부터 시작한 액세서리 판매점 일은 장사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기에 좋았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상품을 직접 만들고 싶던 까닭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무작정 일본행 비행기를 탄다.

생면부지의 땅에 오른 그녀에게 일본 생활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섞인 낯선 시작이었다. 일본어 어학 연수 과정을 마치고 동경제과전문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우연히 들른 제과점에서 먹기에 아까울 정도의 아름다운 웨딩 케이크를 발견한다.

“웨딩 케이크와의 만남은 일본 동경의 유명한 웨딩 케이크 카페인 ‘애니버서리(Anniversary)’에서 슈거 아트에 대한 취미 강화를 수강하게 된 계기가 됐죠. 슈거 크래프트 제품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액세서리나 꽃을 좋아했지만, 인간의 손으로 빛은 색다른 꽃을 눈앞에서 목격한 거죠. ‘야! 내가 가야할 길’이란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시작’ 멀고도 험난한 길을 향해

동경제과전문학교 양과자과 2년생일 때 그녀는 영국 브룩클린의 슈거 전문학교와 동일한 교육 시스템을 갖춘 자매학교인 일본 젠틀리 아카데미(Gentle Academy)에서 슈거 크래프트 2년 과정을 병행해 전



▲ 일본 동경제과전문학교 졸업생 이은경씨는 한국인 최초로 올해 개최된 재팬 케이크쇼 슈거 크래프트 부문 은상을 거머쥐었다.

공한다. 색깔이나 디자인 등에서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예술성’을 중시하는 슈거 전문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 그녀는 세계의 다양한 선진 공예 기법을 배워 향후 국내 제과시장에 ‘한국적인 세련미’를 담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6월 무렵 이은경씨는 슈거 크래프트의 발원지 영국으로 향한다. 영국이란 나라가 유럽시장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미적 감각을 배우는 새로운 발판이 되길 그녀는 소망한다. 슈거 크래프트는 개인에 따라 기법을 표현하는 감각이 확연히 다르게 드러나는 분야인 만큼 개성이 담긴 작품이 많다.

향후 국내에 웨딩 케이크 전문 숍을 오픈해, 작품 제작 강좌도 병행하고 싶다는 이은경씨의 바람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유럽이나 일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지는데 반해 국내 제과시장에서는 생소한 분야인 ‘슈거 크래프트’의 세계. 그녀처럼 열정을 지닌 젊은 여성 기술인들의 노력이 계속 된다면 국내 시장을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사진 / 임희정〉